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숨통 트여... 대권 행보 힘 실릴 듯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 민주당, 이 대표 중심 내부 전열 정비 주력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재판 진행 중...위기상황 다시 불거질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각종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숨통도 일부 트이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특히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을 추진 동력으로 리더십 붕괴를 막고 정치적 반동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됐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내려짐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치적 현안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백사나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무죄 판결을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예정된 일정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위태로워 보였던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압박했던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

욱 강화할 공산도 크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찰개혁 법안 추진, 검사 탄핵 등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안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미 1심이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의 상급심을 포함해 최악의 경우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항소했고, 이튿날 검찰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에 한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법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적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선거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의 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소가 예상되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검찰은 다음 달 2일 내에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말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이브라힘 총리 정상회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해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 맺은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말레이시아는 또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

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말레이시아와 기관 간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진행던 에너지 협력의 범주를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장해 고부가 가치 녹색 경제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발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서 국가 발전 방안을 배우자는 취지의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양국 간 교육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무죄 ... 야 "정의로운 판결"·여 "수궁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궁 어렵지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한 정당한 재판이며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반겼다.

국민의힘은 25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

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또 "이렇듯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실현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적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당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고, 양문석 의원은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액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